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사야서 40:28-31, 고린도전서 9:19-23, 마가복음서 1:35-39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사 40:31).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성경구절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심신이 쇠약해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큰 소리로 읽음으로써 영육 간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맨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 힘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만이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세상에 두는 사람들은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소망을 세상의 가치인 돈에 두는 사람, 명예에 두는 사람, 권세에 두는 사람, 욕망에 두는 사람도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할 소망을 오로지 백신에만 두는 사람도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새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 힘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서는,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했던 주님을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 돌연 잊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용'이요 '활용'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오용'이요 '악용'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유형의 힘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우선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작금의 신앙인들이 코로나19 시대에서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막 1:39). 사도 바울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하였습

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19 시대는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면하지 못하니 복음을 전파하기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둑바둑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미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돌보는 것에 급급할 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현재 학원 선교를 담당하는 간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사람 자체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멀리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일반 신앙인들이 전도를 하기는 할 수나 있을까요?

위기가 기회이기에 전도할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도가 어려우니 간접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박해까지 받게 되는 직접 선교가 아니라 의료 사역, 교육 사역과 같은 간접 선교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간접 선교는 초기 선교사님들처럼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일상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주님의 뜻에 맞도록 조금씩 고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일반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간접 선교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살

아가는 일상의 패턴을 하나님을 향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안하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제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안하던 말씀 묵상(큐티)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는 것입니다. 가끔 어겼던 주일 성수를 접근이 편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히려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하던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안하던 배려와 관심의 전화나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이전과는 다른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소소해보여도 그러한 실천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대단한 말씀 선포나 노방 전도가 아닌 나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착한 행실”이 믿지 않던 나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믿게끔 만들고, 어려웠던 교우와의 관계를 자연스레 회복시키며, 무시했던 나의 지인과의 관계를 다시금 따뜻하게 하고, 무관했던 나의 이웃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말씀 선포, 대면 전도가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일반 신앙인들이 할 수 있으며 해야 할 간접 선교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소소한 착한 행실을 내가 실천할 때 나의 삶의 패턴이 복음화될 것이며, 나의 복음화된 삶의 패턴이 나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복음화된 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복음의 빛에 눈을 뜰 것입니다.

- 김 동 환(2021. 2. 7.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